

##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이 인 열      이 지 혜      이 수 정      이 상 민†

법무부 성동구치소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는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서울 소재 구치소 수형자 120명을 대상으로 성인애착(ECR-R), 희망(DHS-K), 탄력성(CD-RISC)을 측정하였다. 각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고,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으로 성인애착의 불안차원, 회피차원이 희망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회피애착 차원과 불안애착 차원간의 관계는 서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심리적 탄력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관계로 나타났고, 희망은 불안애착 차원, 회피애착 차원과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심리적 탄력성과는 유의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 불안애착 차원, 회피애착 차원이 희망을 매개로 심리적 탄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만이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수형자의 심리적 탄력성을 위한 개입에서 희망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희망을 주기 위한 교정 시설 및 교도관 차원에서의 개입 방법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형시설 차원의 수형자 관련 제도개선 및 상담적 개입방법과 본 연구의 제한점,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하였다.

주요어 : 수형자, 성인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희망, 탄력성, 매개효과

\* 본 연구는 2013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본 논문은 이인열이 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Tel: 02-3290-2306, E-mail: leesang@korea.ac.kr

범죄백서(대검찰청, 2012)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51.2%였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횟수 구성비를 살펴보면 5범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며, 2008년(35.4%), 2009년(36.5%), 2010년(37.8%), 2011년(38.3%), 2012년(39.1%)로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민정희(2006)는 재범횟수가 많을수록 수형자가 교정시설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하였다. 결국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형자의 재범가능성은 교정시설에서의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공정식, 1996). 수형자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제한된 한편 몇 평의 소규모 공간에서 10명 이상의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지내며 활동 영역과 일과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적응과 관련된 어려움에 더욱 노출되어 있으며(심영희, 1992), 수감 초기에는 적응장애를 겪기도 한다(Anderson, 2004). 일부 수형자들은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수감생활에서 폭행치사(58.7%), 자살(2.4%) 등 여러 형태의 부적응 현상을 보이고 있다(대검찰청, 2012). 이러한 부적응 문제에 대한 개입 없이 수형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사회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거나 재범으로 다시 교정시설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공정식, 1996). 반대로 수형자가 교정시설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면, 사회적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수형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잘 적응하는 것, 특히 수감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은 탄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탄력적(resilient)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

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환경적·심리적 스트레스에 덜 예민하게 반응하며, 위험 요인을 잘 극복하여 곧 주어진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Garmezy, 1993; Luthar, Cicchetti, & Becker, 2000). 즉, 탄력성은 (1) 역경이나 스트레스 사건, (2) 방해물과 어려움을 극복한 성공적인 적응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필요조건으로 둔다(Garmezy 1990; Olsson, Bound, Burns, Vella-Brodrick, & Sawyer, 2003; Rutter, 1990). 교정시설 내 스트레스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은 사회에 적응하는 것과도 관련 있기 때문에(공정식, 1996; 민정희, 2006) 수형자들이 교정시설에서 겪는 어려움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처하는지는 교정시설 내 적응뿐 아니라 사회적응과 재범 방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정시설 내 수감이라는 스트레스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 즉 심리적 탄력성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심리적 탄력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을 스트레스 상황속에서의 적응이라고 보는 선행연구들의 관점에 따라 심리적 탄력성을 수용시설 내 수형자의 적응이라는 맥락으로 보고자 한다.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종합해보면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가족 요인, 지역 사회적 등으로 구분된다. 개인 내적 측면으로는 생물학적 기질, 인지 능력, 대처전략, 성격 특성 등이 있고, 개인 외적인 측면으로는 가정환경, 양육방식, 애착, 가족외의 사회적 지지체계 등이 제시된다(Anthony, 1974; Bernard, 1991; Garmezy, 1991; Mandlco & Peery, 2000; Masten, 1994; Rutter, 1993; Werner & Smith, 1992). 수형자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수형시설 내 적응을 좌우하는 개인 내적 변인으

로 수형자의 교도관에 대한 태도, 범죄에 대한 낙인, 부정적 자기 인식 등을 언급하고 있다. 탁희성(2001)의 연구에서 수형자들 중 약 58.1%가 교도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그 중 73.9%가 교도관이 행하는 교육이나 훈련에 대해서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나 교도관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수형자들은 규율이나 명령에 순응하며 교도관들이 안내하는 재활 훈련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재사회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게 된다고 하였다. 심영희(1992)는 수형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면, 성공적인 재사회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홍성열(2007)은 수형자의 68.9%가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자기 인식으로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개인 외적인 측면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볼 수 있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는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민정희와 강혜자(2009)의 연구에서 수형자의 사회적 지지 자각은 교정 시설 내 규율위반 행동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주요 사회적 지지원(지인, 가족)과의 외부교통 만족도가 수형자의 교정시설 내 적응태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탁희성(2001)의 연구에서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도운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응답한 수형자가 65.3%으로 나타나 수형자에게 있어서 가족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특히 애착은 생의 초기에 주요 인물들과 형성되는 유대 관계로 수형자가 사회적 지지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인이다. Sarason, Pierce와 Sarason(1990)은 주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한 애착이 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수준, 즉 사회적 지지 지각의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Larose(1993)의 연구에서 부모 애착의 질은 이후 사회적 지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진(2000)의 연구에서도 애착이 안정적인 집단이 불안정한 집단에 비해서 사회적 지지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의 지각의 근간이 되는 애착은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애착(Attachment)은 자신과 가장 친밀한 한 사람 혹은 소수의 대상과의 높은 수준의 정서적 유대로 정의된다(Bowlby, 1958;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의 애착연구 이후 많은 학자들은 아동기뿐 만 아니라 전 생애 애착발달에도 집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Hazan과 Shaver(1987)는 아동기의 애착 패턴이 성인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성인애착은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친밀함을 느끼는 대상과 계속해서 유대를 지속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의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장연주, 2007). Brennan, Clark와 Shaver(1998)는 성인애착을 성인애착불안(Adult attachment anxiety)와 성인애착회피(Adult attachment avoidance)로 구분하였다. 불안차원은 타인과의 관계형성에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 정도이고, 회피차원은 타인에게 자신을 개방하고 독립성을 침해받는 것에 대한 불편감 정도이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애착과 탄력성간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Creasey와 Hesson-McInnis(2001)는 성인애착의 불안과 회피가 높은 사람은 갈등상황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양수진(2010)은 탄력성이 성인애착의 두 가지 차원인 불안, 회피

와 부적상관을 보이며, 성인기의 안정적인 애착은 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하더라도 안정적인 애착을 지닌 사람은 이를 충분히 탄력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영미, 민하영(2004)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을수록 또는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타인에게 의존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을수록 심리적 탄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안정애착은 심리적, 신체적인 병리증상이 적은 건강한 상태와 연관성이 높다(Hazan & Shaver, 1987). 반대로 불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행자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 관련이 큰 성인애착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다.

성인애착과 탄력성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때 성인애착과 탄력성간의 경로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입으로 변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성인애착은 아동기의 애착 패턴이 지속되는 일관적인 모습을 주로 보이기 때문이다(Bowlby, 1988). 애착 이론을 주창한 Bowlby(1969)는 어릴 적에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은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 성인기 이후의 성인애착 양식에 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아이의 주 양육자와의 초기 애착 양상이 성인기에 형성하는 타인과의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성인애착양상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장휘숙, 1998; Hazan & Shaver, 1987). 따라서 성인애착은 개인의 탄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지만, 탄력성을 높이려는 개입적인 측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성인애착과 관련이 높으며 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변적 변인으로 희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Snyder(1994)는 희망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탐색하고 활용하고자 계획하는 능력(경로사고)과 찾아낸 수단을 실제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에너지(주도사고)라는 두 가지 차원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희망이 높은 사람은 목표 성취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사고 실패보다는 성공에 초점을 맞추며, 도전의식을 가지고 비교적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인다. 반대로, 희망이 낮은 사람은 목표 성취의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성공보다는 실패에 초점을 맞추며, 양가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보인다(Snyder, Harris et al., 1991). 즉,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스스로의 내적 에너지이다. 희망은 가변적이고(Lopez, Rose, Robinson, Marques, & Pais-Ribeiro, 2009)), 교육, 상담 등의 외부개입을 통해 희망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는 면(Lopez, 2010)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성인애착과 희망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높은 희망 수준을 보이는 성인들은 성장기에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주 양육자가 있었다고 일관적으로 보고하였다. 어릴 적, 이들의 주 양육자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을 계획하기 위한 인과적인 사고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었다.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주 양육자와 아동과의 관계는 아동이 차후에 자라서까지 희망을 갖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Snyder, 2000). 안정적인 성인애착을 보이는 사람은 어릴 적 주 양육자로부터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정서적인 자원들

을 충분히 공급받아 목표 달성의 가능성도 높으며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목표지향 행동을 보다 끈기 있게 이끌어 나갈 확률 역시 높다(Bretherton & Munholland, 1999). 이와 관련하여 장휘숙(1998)의 연구에서 안정애착 집단이 회피, 불안 및 양가적 애착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희망 수준을 보였다. 안정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세상이 안전하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인지한다(Simmons, Gooty, Nelson, & Little, 2009). 또한,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며(Quick, Nelson, Matuszek, Whittington, & Quick, 1996),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타인을 신뢰하고 타인의 신뢰를 잘 얻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호혜적인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스스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Ainsworth & Bowlby, 1991). 이렇게 구축된 사회적 안전망은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이 되며, 또 목표를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동기를 얻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Snyder, 2000). Shorey, Snyder, Yang과 Lewin(2003)의 연구를 보면, 안정 애착을 보이는 사람들은 높은 희망수준을 보였으며, 불안, 회피차원의 애착은 모두 주도 사고와 경로사고와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혜진(2006)의 연구에서도 애착과 희망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주영과 최희철(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불안애착이나 회피애착 양상을 보이는 사람은 희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이 심한 성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원을 탐색하는 데(문제해결력을 기르는 데)에 소극적이거나 타인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여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수단들을 많이 갖

지 못한다. 게다가 목표 달성과정에서 겪는 고통에 대한 타인의 위로를 얻기 위해 고통을 최대한으로 표현하여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가장 위안이 필요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무력감을 경험하고(Wallin, 2007)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회피애착이 심한 성인은 친밀해지는 것을 멀리하며 타인과 거리를 두기 때문에 문제 해결과정에서 역할 모델이 부족하고, 도움을 얻으려 하지 않아 자원 탐색의 범위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문제해결의 기회를 놓치거나 더 어려운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도 한다. 또한, 주위에 목표달성을 위한 의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회적 지원이 적기 때문에 목표를 끝까지 추진해 나가기 위한 에너지가 부족하여 희망이 낮을 수 있는 것이다. 희망이론의 관점에서 교정기관에 수감된 수형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인 경로가 없거나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때문에(낮은 경로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수감될 위험까지 무릅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희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적응인 탄력성(Masten, Hubbard, Gest, Tellegen, Garmezy, & Ramirez, 1999)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보호요인으로(김택호, 2004) 탄력성과 관련을 보인다. 심리적 탄력성은 희망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장 극단적으로 대변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Ong, Edwards, & Bergeman, 2006). 수형자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수감생활로 격리되어 가족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수감 전처럼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수형생활의 큰 스트레스 요인이

라고 하였다(Carlson & Cevera, 1991). 이보람 (2011)의 연구에서는 가족 또는 지인과의 접촉 및 출소 후의 생활에 대한 기대 등의 요인은 수형자의 긍정적인 자원이 되어 규율위반을 줄이고 교정시설 내 적응이라는 목표를 실행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희망이 소년 수형자들의 준법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며 희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Webster, 2004). 목표추구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에도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추가적인 통로들을 탐색하며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문제해결적 전략을 많이 발견하여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나타낸다(Snyder, 1994, 2000; Snyder, et al., 1991; Suls & Fletcher, 1985). Snyder와 Pulvers(2001)는 희망이 낮은 사람은 미래에 대하여 극도의 걱정을 하는 반면에 높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대안적 경로를 찾아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마약류사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희망과 자기효능감은 마약남용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와 상관을 보였으며 높은 삶의 질과도 상관을 보였다(Irving et al., 1998). Martin 과 Stermac(2010)은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범죄나 마약과 같은 불법행동에 연루될 위험이 더 크며 낮은 희망은 상습적 범행과도 관련이 높다고 하였다. 수형자는 구금중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출소 후 사회생활, 가족의 기다림 등을 생각하며 극복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현재 생활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수형자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 재사회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홍성열, 2007). 즉, 낮은 희

망을 가진 수형자는 자기관리 및 통제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

결과적으로, 범죄 억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애착은 수형자의 범죄를 억제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전영실, 신연희, 2009), 안정적인 성인애착은 희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장휘숙, 1998). 선행연구를 통해 희망은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탄력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희망에 대한 개입은 수형자들의 시설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수형자들이 출소 후에도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 수형자의 성인애착(불안차원, 회피차원), 희망, 심리적 탄력성(교정시설 내 적응)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Brennan 등(1998)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각각 독립적인 차원으로 가정하여 희망 및 심리적 탄력성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설정하였다. Brennan과 동료들(1998) 뿐 아니라 Mikulincer과 Shaver (2007)의 연구에서도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관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국내 연구를 보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낮은 정도의 상관이 나타나는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김은화, 2011; 김병직, 오경자, 2013) 경쟁모형에서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사이의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둘째, 가설모형에서는 희망을 통한 성인애착의 간접경로만을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수형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아동기 외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Driessen, Schroeder, Widmann, Schonfeld, & Schneider, 2006; 김영화, 2010) 수형자 집단에서는 애착과 적응의 관련성이 적거나 미미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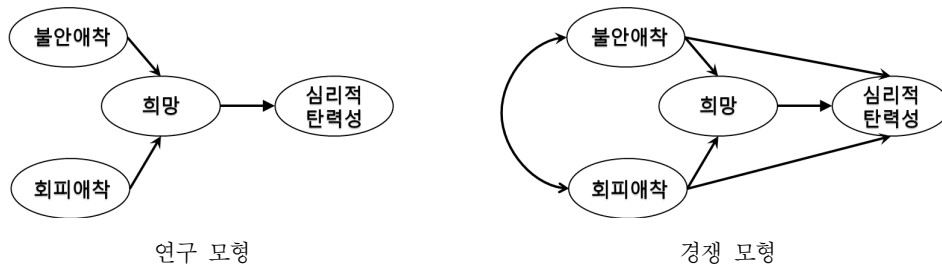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및 경쟁 모형

그러므로 애착의 직접효과보다는 희망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은 심리적 탄력성을 어떠한 경로로 설명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구성하였다.

**연구문제 1.** 불안애착은 희망을 매개하여 심리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회피애착은 희망을 매개하여 심리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S구치소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연령은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분포하였고 40대 이상이 63%로 가장 많았으며, 남자 99명(83%), 여자 21명(17%)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초범은 44명(37%), 재범 25명(21%), 3범 12명(10%), 4범 12명(10%), 5범 27명(22%)이었다. 총 130부 중 124부를 회수하였으며, 누락 또는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12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은

수형자의 처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교도관들이 집단으로 지시사항을 설명한 후에 실시 및 회수하였다.

### 측정도구

#### 성인애착 척도(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수형자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개발한 성인애착 척도를 김성현(2004)이 번역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불안차원, 회피차원 2 요인으로 각각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Likert 척도로 평정한다(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아주 그렇다). 하위차원(불안, 회피)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각각 불안 또는 회피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불안차원은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을 경계하는 정도로, 문항의 예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대해 같은 감정이 아닐까봐 걱정된다.’ 등이 있다. 회피차원은 타인과 가까워지거나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도로,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등이 있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불안차원은 .89, 회피차원은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불안차원의 신뢰도는 .89, 회피차원은 .79로 나타났다.

#### **한국판 희망척도(Dispositional Hope Scale-Korea)**

수형자의 희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nyder 등(1991)이 개발한 희망척도(Dispositional Hope Scale: DHS)를 최윤희, 이희경, 이동귀(2008)이 한글로 번안한 한국판 희망척도(DHS-K)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도사고, 경로사고, 허위문항의 3요인이며 각각 4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전혀 아니다, 4점=분명히 그렇다)로 평정한다. 높은 점수를 가질수록 희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주도사고는 목표를 위해 찾아낸 수단을 실제로 이용하여 목표를 달성시키는 에너지 정도로, 문항의 예로는 '나는 스스로 정한 목표를 따른다.' 등이 있다. 경로사고는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하고 활용하고자 계획하는 능력으로, 문항의 예로는 '어떤 문제라도 길은 많이 있다.' 등이 있다. 허위문항은 희망을 변별해 내기 위한 문항으로 희망수준을 측정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진승하, 신희천(2010)의 연구에서 희망척도의 신뢰도는 주도사고 .74, 경로사고 .7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주도사고 .72, 경로사고 .70로 나타났다.

#### **탄력성 척도(Conne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수형자의 심리적 탄력성(resilience)을 측정하기 위해 Conner와 Davidson(2003)이 제작한 탄

력성 척도(CD-RISC)를 백현숙(2010)이 번안하고 타당화 하였다. 이 척도는 5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거의 대부분 그렇다)로 평정한다. Campbell-Sills와 Stein(2007)은 CD-RISC의 불안정한 요인구조에 대한 여러 연구(Campbell-Sills, Cohan & Stein, 2006; Yu & Zhang, 2007)를 바탕으로 총 25개 문항 중에서 탄력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10문항을 이용한 단일차원의 축약형 CD-RISC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Campbell-Sills와 Stein(2007)의 제언대로 단일차원의 축약형을 사용해 심리적 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변화가 일어날 때 적응할 수 있다.' 등이 있으며, 높은 점수를 가질수록 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을 줄이고 측정오차를 줄여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Bandalos, 2002) 문항꾸러미 3개를 작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Campbell-Sills와 Stein(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9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각각 심리적 탄력성, 희망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수형자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탄력성의 관계에서 희망이 매개 하는지를 AMOS 18.0 프로그램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해 검증하였다. 이 때, 모형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각 연구변인의 척도와 왜도를 살펴보고,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였다. 척도와 왜도는 Curran, West와



Finch(1996)에서 제시된 정규분포의 기준(왜도 < 2, 첨도 < 7)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변수는 잠재변인의 하위구조에 따라 설정하였다. 성인애착의 불안차원, 회피차원을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잠재변인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이에 각 요인에 해당하는 18문항을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 방식(Bandalos, 2002)을 적용하여 세 개의 문항 꾸러미로 분류하여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문항 꾸러미를 설정하기 위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각의 꾸러미가 모두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세 개의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여 각 잠재변인당 3개의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희망은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를 희망에 대한 두 개의 측정변수로 설정하였다. 심리적 탄력성 또한 단일요인 척도이므로 10개 문항을 세 개의 문항꾸러미로 분류하여 측정변수들을 설정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 대신 더욱 민감하게 검증할 수 있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Shrout & Bolger, 2002). 반복적인 경험적 표본추출을 하는 부트스트래핑의 경우, 간접효과가 정상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가정을 우회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Yung & Bentler, 1996; 서영석, 2010). 또한, 부트스트래핑을 계속하면 안정된 모수추정치룰 구할 수 있으며 표준오차가 줄게 된다(김계수, 2010). 부트스트래핑은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간접효과에 대한 신뢰구간(예, 95%)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Shrout & Bolger, 2002). 본 연구에서는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

(N=120)로부터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chi^2$ 검정뿐 아니라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chi^2$ 의 단점이 상대적으로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이기에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까지 모두 고려하는 CFI, TLI와 RMSEA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0 이상, RMSEA는 .10 미만일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적합도인 것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 결 과

### 각 변인별 상관 분석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 희망, 심리적 탄력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표 1에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간의 상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인간의 상관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불안애착의 경우, 나머지 세 변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회피애착의 경우에도 나머지 세 변인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희망의 하위요인인 경로사고와 주도사고의 경우, 각각 심리적 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1. 각 변인간 상관 및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M	SD
1. 불안애착	-					2.76	1.0
2. 회피애착	.11	-				3.92	.83
3. 경로사고	-.47**	-.23*	-			3.06	.53
4. 주도사고	-.30**	-.19*	.47**	-		2.59	.56
5. 심리적 탄력성	-.37**	-.21*	.56**	.47**	-	3.58	.73

\* $p < .05$ , \*\* $p < .01$ , \*\*\* $p < .001$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chi^2(38, N = 120) = 76.12, p = .00, CFI = .94, TLI = .91, RMSEA = .09$  (90% 신뢰구간 = .06-.12). CFI, TLI, NFI는 .9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며, RMSEA는 .05 ~ .10면 비교적 적절함을 나타낸다(홍세희, 2000).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60에서 .91사이에 분포하며 유의도 .01 수준에서 잠재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적재치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수를 구인함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 검증

가설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제안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가를 평가하였다. 가설모형의 적합도는  $\chi^2(41, N = 120) = 78.88(p = .001), TLI = .93, CFI = .95, RMSEA = .09$ (90% 신뢰구간 : .06-.12)로 양호하였다. 경쟁모형 역시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8, N = 120) = 76.12 (p = .00),$

$TLI = .92, CFI = .94, RMSEA = .09$  (90% 신뢰구간 : .06-.12).  $\chi^2$ 차이 검증을 통해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두 모형은 적합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3, N = 120) = 2.76 (p = .43)$ . 하지만 경쟁모형에서의 직접경로와 불안애착, 회피애착 간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과 가설모형의 적합도가 경쟁모형보다 전반적으로 같거나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한 더 간명한 가설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모두 희망에 부적 영향 미치고, 희망은 심리적 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불안애착의 희망에 대한 경로계수는 ( $\beta = -.59, p < .001$ ) 유의하였다. 회피애착의 희망에 대한 경로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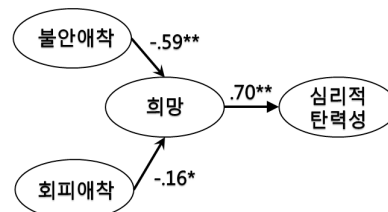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모형  
( $N = 120$ ) \* $p < .05$  \*\* $p < .01$

는 ( $\beta = -.23, p < .05$ )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불안애착 또는 회피애착 성향이 높아지면 희망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회피애착에 비해 불안애착의 회귀계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희망의 심리적 탄력성에 대한 경로계수는  $\beta = .70, p < .001$ 로 희망이 높아지면 심리적 탄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경로계수의 절대값이 .10 보다 적으면 작은 효과, .10에서 .50사이는 중간효과, .50이상의 절대값을 보이면 큰 효과라는 Kline(1998)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회피애착에서 희망의 경로가 중간 정도의 영향(-.23)을 미치고, 불안애착과 희망, 희망에서 탄력성의 경로 역시 큰 영향(각각 -.59, .7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희망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간접효과 검증

매개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 방법에 따라 무선표집으로 1,000개의 표본을 원자료(N=120)로부터 생

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이 영을 포함하지 않으면 .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종모형의 총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를 정리하여 제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이 희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59(p < .001)$ 이고, 회피애착이 희망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23(p < .05)$ 이고, 희망이 심리적 탄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70(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은 희망을 통해 심리적 탄력성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beta = -.41, p < .01$ ). 불안애착이 심리적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희망이 불안애착과 심리적 탄력성 간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회피애착이 희망을 통해 심리적 탄력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부적으로 나타났다 ( $\beta = -.16, p < .05$ ). 회피애착이 심리적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희망이 회피애착과 심리적 탄력성 간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의미한다.

표 2. 매개효과의 효과분해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총효과
불안애착 → 심리적 탄력성	-	$-.41^{**}(-.56, -.26)$	$-.41^{**}$
회피애착 → 심리적 탄력성	-	$-.16^{*}(-.35, -.03)$	$-.16^{*}$
불안애착 → 희망	$-.59^{***}$	-	$-.59^{***}$
회피애착 → 희망	$-.23^{*}$	-	$-.23^{*}$
희망 → 심리적 탄력성	$.70^{***}$	-	$.70^{***}$

주. N=12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에 제시된 계수들은 표준화된 수치임

## 논 의

### 연구 결과 및 함의

본 연구는 수형자의 성인애착, 희망, 심리적 탄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성인애착이 희망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하여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모형의 검증 결과, 불안애착과 심리적 탄력성, 회피애착과 심리적 탄력성과의 직접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희망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탄력성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 가설모형과 경쟁모형의  $x^2$  차이값과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비교한 결과,  $x^2$ 의 차이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나아가 가설모형이 더 나은 적합도 값을 보이는 간명한 모형으로 나타나 가설모형을 채택하였다.

둘째,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희망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유의미하였으며, 불안애착, 회피애착의 성향이 커질수록 희망이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과 희망과의 부적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이주영, 최희철, 2012; 한나, 2011)과 일치한다. 회피애착이 심한 수형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른 대안(경로)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좌절을 겪을 수 있다. 한편, 불안애착이 심한 수형자는 낮은 자존감과 함께 수용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적응하고자 하는 에너지(주도사고)가 낮으며(Shory et al., 2003)와 수형생활 적응 및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경로사고)이 부재할 수 있

다. 이는 불안애착이 높은 경우, 애착행동에 집착함으로써 목표 추구를 위한 탐색활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희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송은혜, 2006; 이주영, 최희철, 2012)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다. 총 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불안애착이 회피애착보다 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친구 등 중요한 타인과 격리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타인의 무관심에 취약한 불안애착 성향의 사람(Wallin, 2007)에게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어 적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성인애착의 불안차원, 회피차원은 직접적으로 심리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희망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성인애착이 희망을 매개하여 심리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형자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 대한 차이검증은 실시하지 못했지만 ECR-R을 사용하여 대학생, 성인 및 일반인 성인애착을 측정했던 다른 선행연구(강수진, 최영희, 2011; 신지욱, 2006)에 비해 본 연구에서 불안 및 회피 애착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결국 수형자에게 있어 희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수형자의 불안 및 회피적 애착 특성이 낮은 희망과 높은 관련을 보이기 때문에 탄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은 직접적으로 심리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희망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결과는 희

망이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Marqucs와 동료들(2011)의 종단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희망수준이 낮은 성인들은 성장기에 자신의 주 양육자는 자신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으며, 자신을 보호 또는 지지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일관적인 보고가 있었다(Snyder, 1994).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희망이라는 변인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형자에게 희망은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고 이런 경로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수형자가 수용생활이라는 어려움을 접하였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대안적 통로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버지 학교’, ‘집단상담’ 등과 같은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수형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이들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출소 후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수형자들이 수용생활에 적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출소 후에 대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적 관점에서 사회적응이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로서 산업기술의 습득이 필요할 것이다. 실질적인 산업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경제적 존립기반을 확보해 주어 미래 삶에 대한 희망을 고취시켜 수용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희망수준이 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들은 교도소 밖의 사회생활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주도사고)가 낮아져 현

재의 수용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고자 하는 목표를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서 중간적인 처우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귀휴’, ‘중간처우의 집’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귀휴’는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중간처우제도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고, ‘중간처우의 집’은 현재 안양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중간처우제도의 확대실시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형자 사회복귀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를 통한 한계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 S구치소에 수용 중인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수형자에게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죄형별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전체 연구 대상자 120명 중 남자 수형자가 99명(82.7%), 여자 수형자가 21명(17.5%)으로 성비의 불균형이 있으며, 초범과 재범 및 상습범 등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표집 샘플이 적고 집단의 편포로 인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는 다집단모형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성별, 범수, 범죄형태 등을 공변량으로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심리적 탄력성의 관계를 희망이라는 매개변인으로 하여 연구하였는데, 추후에는 희망 이외에 교정기관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교정기관의 물리적 환경 및 분위기에 대한 지각, 구금의 심적 고통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수형자의 상황적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심리적 탄력성을 횡단으로만 측정된 것으로서, 종단으로 측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탄력성의 역동적인 측면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탄력성은 극심한 역경이나 외상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보이는 역동적인 과정(Luthar, et al., 2000)으로 고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매우 역동적이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Luthar et al., 2000; Masten & Coatsworth, 1995; Reynolds, 1998; Rutter, 1985), 다양한 환경요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Dyer & McGuinness, 1996). 하지만 본 연구의 횡단적 연구는 탄력성의 과정 중에서 특정 시점을 보여줄 뿐이므로,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탄력성의 본질을 파악하여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탄력성의 변화양상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수형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일반인과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일반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면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라는 교정이념을 확립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여 추후에는 지역적,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집단의 표집과 탄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통한 다각적이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진, 최영희 (201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 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53-68.
- 공정식 (1996). 범죄인의 법률관, 범죄관 및 수용환경이 시설적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계수 (2010). AMOS 구조방정식모형분석. 서울: SPSS 아카데미.
- 김병직, 오경자 (2013). 성인애착 불안/회피 차원과 우울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의 탐색: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대한 정서 조절의 차별적 경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3), 519-548.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00). 애착수준에 따른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 유형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3, 149-170.
- 김영화 (2010). 남성 수형자의 아동기 외상과 자살사고의 관계: 우울의 중재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화 (2011). 성인기 애착의 불안-회피 차원에 따른 대인관계문제: 스트레스 대처 양식의

-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택호 (2004). 청소년의 탄력성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5, 743-772.
- 대검찰청 (2012). 2012년 범죄백서.
- 민정희 (2006). 교도소 수형자의 수형생활실태, 심리적 요인 및 시설내 적응태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정희, 강혜자 (2009). 교도소 수형자의 심리적 요인과 시설내 적응태도. *교정연구*, 45, 253-277.
- 백현숙 (2010). 한국형 Connor-Davidson 자아탄력성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울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심영희 (1992). 수형자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양수진 (2010). 대학생의 부모 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보람 (2011). 수형자의 규율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 민하영 (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1-10.
- 이주영, 최희철 (2012). 대학생의 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2), 819-838.
- 장연주 (2007).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8). 애착에 대한 어머니의 내적 작동모델, 남편에 대한 애착 및 자녀의 생활만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97-113.
- 전영실, 신연희 (2009). 수용자 가족방문 실태 및 그 효과. *한국교정학회*, 45, 279-303.
- 진승하, 신희천 (2010).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 희망의 2요인 모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4), 1519-1535.
- 최유희, 이희경, 이동귀 (2008). Snyder의 희망 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1-16.
- 탁희성 (2001). 출소전 수형자의 의식조사. *연구총서*.
- 한 나 (2011). 놀이치료 내담 아동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과 희망 및 작업동맹과의 관계.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열 (2007). 수형자의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적응. *한국교정학회*, 35, 99-115.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insworth, M. D. S., & Bowlby, J. (1991). An ethological approach to personality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4), 333-341.
- Andersen, H. S. (2004). Mental health in prison populations. A review-with special emphasis on a study of Danish prisoners on remand. *Acta*

- Psychiatrica Scandinavica*, 110, 5-59.
- Anthony, E. J. (1974). The syndrome of the psychologically invulnerable child. In E. J. Anthony & C. Koupernik (Eds.), *The child in his family: Children at psychiatric risk* (pp. 529-545). New York: Wiley.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ernard, B. (1991). *Fostering Resiliency in Kids: Protective Factors in the Family, School and Community*, Western Center for Drug-Free Schools and Communities, Portland, Oregon.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ac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ed int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 (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A construct revisite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89-111). New York: Guilford Press.
- Campbell-Sills, L., Cohan, S. L., & Stein, M. B. (2006). Relationship of resilience to personality, coping, and psychiatric symptoms in young adul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4), 585-599.
- Campbell-Sills, L., & Stein, M. B. (2007). Psychometric analysis and refinement of the connor - 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Validation of a 10-item measure of resilienc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0(6), 1019-1028.
- Carlson, B. E., & Cervera, N. (1991). Inmates and their Families Conjugal Visits, Family Contact, and Family Function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8(3), 318-331.
- Cobb, S. (1976). Presidential Addres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 Connor, K. M., & Davidson, J. R. (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 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18(2), 76-82.
- Creasey, G., & Hesson-McInnis, M. (2001). Affective responses, cognitive appraisals, and conflict tactics i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1), 85-96.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riessen, M., Schroeder, T., Widmann, B., von Schonfeld, C., & Schneider, F. (2006). Childhood trauma, psychiatric disorders, and criminal behavior in prisoners in Germany: a



- comparative study in incarcerated women and men.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7(10), 1486-1492.
- Dyer, J. G., & McGuinness,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350-365.
- Garnezy, N. (1990). *Resilience, competence, and 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Invited presentation at the 1990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Atlanta, GA.
- Garnezy, N. (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416-430.
- Garnezy, N. (1993). Children at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Irving, L. M., Seidner, A. L., Burling, T. A., Pagliarini, R., & Robbins-Sisco, D. (1998). Hope and recovery from substance dependence in homeless vetera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4), 389-406.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 Larose, S. (1993).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Specificity of Perceived Social Support*. Quebec, Canada.
- Lopez, S. J., Rose, S., Robinson, C., Marques, S. C., & Pais-Ribeiro, J. L. (2009). Measuring and promoting hope in school children. In R. Gilman, E. S. Huebner, & M. J. Furlong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in the schools* (pp. 37-51). Mahwah, NJ: Lawrence Erlbaum.
- Lopez, S. J. (2010). Making Ripples: How Principals and Teachers Can Spread Hope Throughout Our Schools. *Phi Delta Kappan*, 92(2), 40-44.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andleco, B. L., & Peery, J. C. (2000).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Conceptualizing Resilience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13(3), 99-112.
- Marques, S. C., Pais-ribeiro, J., & Lopez, S. J. (2011). The role of positive psychology constructs in predicting mental health and academic achievement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6), 1049-1062.
- Martin K. & Stermac L. (2010). Measuring Hope Is Hope Related to Criminal Behaviour in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Comparative Criminology*, 54(5), 693-705.
- Masten, A. S. (1994). Resilience in individual development: Successful adaptation despite risk and adversity. In M. Wang & E. Gordon (Eds.), *Risk and resilience in inner city America*:

- Challenges and prospects*(pp.3-25). Hillsdale, NJ: Erlbaum.
- Masten, A. S., & Coatsworth, J. D. (1995). Competence, resilience, and psychopathology. In Cicchetti, D., & Cohen, D. J.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pp. 715-752),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Masten, A. S., Hubbard, J. J., Gest, S. D., Tellegen, A., Garmezy, N., & Ramirez, M. (1999). Competence in the context of adversity: Pathways to resilience and maladaptation from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1(01), 143-169.
- Mikulincer, M., Shaver, P. R. (2007).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New York: Guilford Press.
- Olsson, C. A., Bound, L., Burns, J. M., Vella-Brodrick, D. A., & Sawyer, S. M. (2003). Adolescent resilience: a conceptual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ce*, 26, 1-11.
- Ong, A. D., Edwards, L. M., & Bergeman, C. S. (2006). Hope as a source of resilience in later adult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7), 1263-1273.
- Quick, J. D., Nelson, D. L., Matuszek, P. A., Whittington, J. L., & Quick, J. C. (1996). Social support, secure attachments, and health. In C. L. Cooper (Eds.), *Handbook of stress, medicine, and health*. (pp. 269-287). Boca Raton, FL: CRC Press.
- Reynolds, A. (1998). Resilience among black urban youth: Prevalence, intervention effects, and mechanisms of influ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8, 84-100.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Rutter, M. (1990).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181-21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93). Resilience: some conceptual consideratio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4, 598-611.
- Sarason, B. R., Pierce, G. R. & Sarason, I. G., (1990). Social support: The Sense of Acceptance and the Role of Relationships', in B. R. Sarason, I. G. Sarason & G. R. Pierce (Eds.) *Social support: An International View*. New York: Wiley.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horey, H. S., Snyder, C. R., Xiangdong Yang, C. R., & Lewin, M. R. (2003). The role of hope as a mediator in recollected parenting, adult attach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22(6), 685-715.
- Simmons, B. L., Gooty, J., Nelson, D. L., Little, L. M. (2009). Secure attachment: implications for hope, trust, burnout, and performanc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0(2), 233-247.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 Snyder, C. R., (2000). The roles of hopeful thinking in preventing problems and enhancing strength. *Applied and Prevention Psychology, 15*, 262-295.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 Snyder, C. R., & Pulvers, K. M. (2001). Copers coping with stress. In C. R. Snyder (Eds), *Coping with Stress: Effective People and Processes* (pp. 285-303). Oxford: University Press.
- Suls, J., & Fletcher, B. (1985). The relative efficacy of avoidant and nonavoidant coping strategies: A meta-analysis. *Health Psychology, 4*, 249-288.
- Webster, A. F. (2004). Affective predictors of ethical behaviour.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4* (7), 3511B. (UMI No. 764802591).
- Wallin, D. (2007). *Attachment and Psychotherapy*. New York, NY: Guilford Press.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Yu, X., & Zhang, J. (2007). Factor analysis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with Chinese peop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5*(1), 19-30.
- Yung, Y. F., & Bentler, P. M. (1996). Bootstrapping techniques in analysis of mean and covariance structures. In G. A. Marcoulides and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echniques and issues* (pp. 195-22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차 원고접수 : 2013. 09. 30.

수정원고접수 : 2013. 12. 03.

최종게재결정 : 2013. 12. 03.

##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 Resilience among Korean Inmates**

**In Yeol Lee<sup>1)</sup>**

**Ji Hae Lee<sup>2)</sup>**

**Su Jung Lee<sup>2)</sup>**

**Sang Min Lee<sup>2)</sup>**

<sup>1)</sup>Ministry of Justice Seongdong Detention Center

<sup>2)</sup>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Education

The current study examines hope as a mediator between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and resilience. For the study, 130 inmates in a detention center in Korea completed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hope and resilience. Pearson correlations were examined among the study variables. Hope was entered as the mediator in the model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odel fit indices were verified. Bootstrapping Analyses were used to prove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avoidant attachment were not significant, but both were inversely related with hope and resilience. Hope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adult attachment dimensions bu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resilience. Results indicated that hope fully mediated the link between anxious attachment and resilience as well as the link between avoidant attachment and resilience. This study calls for the focus on hope to facilitate resilience. Policy adjustments for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prison officers are discusse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with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167 words).

*Key words* : *Inmates, Adult Attachment, Anxious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Hope, Resilience, Mediation Effect*